

IBKS CARBON FINANCE

Invitation to Better K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
2025.06.16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의 CBAM, 전력시장 통합 시스템과 충돌 위기
- 유럽 TSO그룹, EU에 CBAM 2026년 이후로 연기 요청
- EU ETS - CORSIA 현상 유지, 2027년 체계 전환 예고
- CORSIA 1단계 배출권, CIX 지수연동가격으로 첫 등장
- IEA, 2025년 세계 에너지 투자 3.3조 달러로 사상 최대 전망
- Meta, 미국 원자력 발전소와 20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 독일 환경청, 2045년 넷제로 목표 '크게 미달' 전망
- 美 상원, 미사용 IRA 기후·청정에너지 자금 전액 삭감 추진
- IATA, 2025년 SAF 생산량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전력시장 통합 시스템과 충돌 위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전력 시장 통합 (Market Coupling)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뿐 아니라 전기 수입에도 적용. 한편 EU는 전력 시장을 단일화해 국가 간 전력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전력시장 통합 정책도 추진 중

다만, 전력 거래는 방향성과 출처 정보가 없는 ‘익명 거래’ 구조 CBAM은 명확한 국가별 탄소 배출 정보가 있어야 세금 부과 가능 따라서 시장 통합이 그대로 진행될 시 CBAM과 충돌할 수 있음.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2027년까지 EU와의 전력시장 통합을 준비 중인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에너지 공동체 국가는 CBAM의 적용을 피하고 싶어하며, 7월 1일 EU와 면제 협상을 진행할 예정

ACER (유럽 에너지 규제기구)는 현 상황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전력시장 통합과 CBAM이 모두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혼선이 야기될 것을 우려

Entso-E (유럽 전력망 운영자 단체)는 CBAM 시행을 2026년 이후로 유예할 것을 촉구

유럽 TSO그룹, EU에 탄소국경제도 (CBAM) 2026년 이후로 연기 요청

유럽 TSO*그룹 Entso-E*(유럽 전력망 운영자 단체)는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실행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청

Entso-E는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CBAM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세부 운영 지침이 아직 불명확하며, Non-EU국가 (특히 동남유럽 및 에너지 공동체 국가)의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힘.

이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과도기(현행 '26년 1월 종료 예정) 연장 및 전력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제안

*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전력 송전망 운영자)

: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고압 송전망을 운영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균형을 책임지는 기관/회사

*Entso-E (European Network of TSOs for Electricity)

: 유럽 내 여러 국가별 TSO가 협력하여 구성한 유럽 차원의 조직

EU ETS - CORSIA 현상 유지, 2027년 체계 전환 예고

EU가 국제선 항공사에는 CORSIA를, 유럽 내 노선에는 EU ETS를 적용하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확정

프랑스 컨설팅사 Capgemini는 CORSIA의 낮은 가격 효과로 실질 감축 유인이 약하다는 점과 외교적 충돌 우려 등으로 인해 EU가 당분간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 평가한 바 있음.

다만, EU는 CORSIA의 1차 의무적용기간 (2024~2026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부터는 CORSIA만 유지할지, EU ETS를 국제선까지 확대할지, 두 제도를 통합·조정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지 결정해야 함.

금번 EU의 현행 유지 발표는 2027년 전까지는 CORSIA 적용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그 이후 효과성과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임을 시사

CORSIA 1단계 배출권, CIX 지수연동가격으로 첫 등장

싱가포르 소재 거래소 Climate Impact X (CIX)가 총 50만 톤 규모의 CORSIA 1단계 배출권(EEU)이 지수연동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발표

동 제안은 CORSIA Phase 1 기간(2024~2026년)에 사용 가능한 배출권으로, CIX의 CORSIA 계약 20일 평균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톤당 \$10.70의 최저가격이 보장

해당 배출권의 출처는 케냐의 쿡스토브 프로젝트 (GS 11331)이며, 총 50만 톤, 최소 구매 단위는 25,000톤, 크레딧 생산년도(빈티지)는 2022년 이후로 거래. 최종 CORSIA 라벨은 2026년 말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판매 제안은 2025년 8월 5일까지 유효할 전망

지수연동가격 메커니즘은 자발적탄소시장 (VCM)에서는 드문 방식으로, 이번 거래는 향후 탄소시장 가격 투명성 제고와 유동성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

IEA, 2025년 세계 에너지 투자 3.3조 달러로 사상 최대 전망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5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가 사상 최대인 3.3조 달러(약 4,49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 중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에 대한 투자는 2.2조 달러 (약 2,995조 원)로, 화석연료 부문 투자액의 2배 수준

2025년 섹터별 투자 예상 집행가능현황:

-Solar power: 4,500억 달러 (약 613조 원)

-Battery storage: 660억 달러 (약 90조 원)

-Oil and gas:

유가 하락 및 수요 둔화 전망으로 2025년 6% 감소할 전망
이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첫 감소

-Grid:

4,000억 달러(약 545조 원), 전력 발전 투자에 비해 부족한 수준

에너지 투자 집중도는 국가별 격차가 큰 편. 개도국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자본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중국은 전체 청정에너지 투자 중 1/3을 차지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

Meta, 미국 원자력 발전소와 20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메타 (Meta)는 미국 원자력 발전 회사인 Constellation Energy의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클린턴 청정 에너지 센터’와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을 맺으며, 빅테크 최초로 원자력 전력 공급을 확보

동 계약은 2027년 종료 예정인 일리노이 주의 보조금 지원을 대체해 Constellation Energy 발전소의 운영 지속 및 30MW 증설을 가능하게 함. 이는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기업이 원전의 지속 운영을 보장한 첫 사례로, 이 회사의 주가는 계약 발표 후 5.7% 상승

AI·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정적이고 탄소 저감이 가능한 원자력 전력 확보를 위한 메타의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평가

다른 빅테크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존 원전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의 노후 원전 연장 및 신규 원자력 기술 (SMR 등)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독일 환경청, 2045년 넷제로 목표 '크게 미달' 전망

독일 환경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45년까지 최대 2억 톤의 탄소 초과 배출이 예상, 넷제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환경청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1. 현재 정책을 유지할 시, 2045년 잔여배출량은 2억 400만 톤
 2. 추가적인 기후정책을 적용할 시, 잔여배출량은 1억 8,400만 톤
- 다만, 두 시나리오 모두 2030년까지 65% 감축이라는 중간 목표에는 소폭 미달한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

에너지 부문은 석탄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의 확대 덕분에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2030년 이후 감축 속도는 급격히 둔화될 전망

건물, 교통, 산업 부문이 감축 목표를 크게 하회. 배터리 전기차 보급률은 정부 목표인 2030년까지 1,500만 대의 절반 수준인 870만 대에 머물 것

독일의 2045년 예상 감축률은 1990년 대비 84~85%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는 평가

미국 상원, 미사용 IRA 기후·청정에너지 자금 전액 삭감 추진

미국 상원의 환경 및 공공사업위원회 (EPW)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배정된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자금 중 미사용된 자금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예산 조정안 초안을 발표

해당 안건은 IRA의 모든 조항 폐지가 목표

- IRA의 미사용 자금 전액 회수
- 환경심사 opt-in fee program* 도입
- 석유 및 가스업체의 메탄 배출세 10년 유예 등의 내용 포함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IRA 혜택의 일부 유지 희망

*opt-in fee program

- 석유 시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NEPA)가 필수적
- NEPA는 통상 수개월~수년이 소요, 프로젝트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opt-in fee program은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납부 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가속화 가능성)

IATA, 2025년 SAF 생산량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2025년 지속가능 항공연료 (SAF)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해 200만 톤에 이를 것이라 전망

이는 전 세계 항공 연료 사용량의 0.7%에 불과하며, 연료비는 44억 달러 (약 5.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IATA는 생산 속도 및 비용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기업과 항공기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촉구

항공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SAF 확대가 핵심이라 평가

IBKS 탄소금융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기술&설비 투자
- 주식,채권,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